

3개 주요 월간 여성잡지에 나타난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 (1997년 3월 – 1998년 2월 중심으로)

유은광* · 이성은** · 김명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최근 30년 동안 근대화 및 산업화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쫓아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따라서 건강관련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 또한 증가되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대중도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일반적인 건강상식에서 전문적인 의료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건강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있다. 물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매체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건강관련 정보가 더 이상의 의료인들만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다(이성은, 1994).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를 반영하여 신문이나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각종 보건관련 내용이 많아지는 추세이며(김실, 1994), 대부분의 일반 대중에게 신문, 방송, 각종 잡지 등은 중요한 건강에 대한 정보원이 될 수밖에 없다. 손쉽게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은 대중매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각각의 매체로서의 독

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잡지는 그 속 성상 경제의 발전이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개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라 할 수 있겠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하고 특정화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매체가 바로 잡지이기 때문이다(김남석, 1990 (이현주, 1994에 인용)).

잡지 중에서도 여성잡지는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좀 더 많은 여가시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의 확대로 의식수준이 과거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된 점은 여성잡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현주, 1994). 여성잡지의 발간은 그 시대를 특징지우며 여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보편화시키는데 공헌하였다(이옥진, 1980). 물론 현실적으로 여성 잡지는 초창기의 계몽적이고 정치적, 사상적 성격 또 여성독자의 저변확대라는 궁정적인 측면보다는 상업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의 말초적인 관심에 집착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이현주, 1994).

그러나 대중매체의 특성상 제공되는 건강관련 정보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일반대중에게 도움이 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게 되며, 여기에 실린 건강관련 정보도 수용대중의 기대나 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이성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경북 간호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은, 1994).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손쉽게 접하는 여성잡지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련 기사는 대상 독자층인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며 건강과 생활 형태에 관한 정보의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잘못된 정보는 불안을 유발하고 투약, 식이 및 생활패턴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Hotham, 1995) 여성의 건강정보 습득과 건강에 대한 태도 형성 및 건강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홍수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건강정보가 제공되고, 또 이러한 건강정보의 종류나 내용과 영향 또 앞으로의 바람직한 건강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양한 건강정보 원 중에서도 특히 발달하고 있는 잡지문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여성독자에게 어떤 내용의 건강정보가 제공되는지 그 경향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봄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건강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의 하나인 대중매체 중 여성잡지에서 어떤 건강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여성에게 적절하고 바람직한 건강정보 제공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를 대상자별, 건강관리별, 주제별 및 정보원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여성 잡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 내려진 잡지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안춘근(1990)은 “잡지란 발행자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재료 즉, 논문, 기사, 사진, 회화 등을 구성하고, 수집하고, 배치 또는 배열, 종합 표현하여 제작한 것을 동일한 제호 아래 정기적으로 발행한 책이다”고 정의 하였으며, Wolseley(1966)는 “잡지란 일반 독서대중을 대중으로 한 기사소설, 시, 사진 등의 잡다한 내용이나

특별한 취미, 관심이나 직업을 가진 집단 및 특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 내용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이다”라고 정의하였다(이현주, 1994).

이러한 잡지는 다양성의 기능, 재생산의 기능, 확산의 기능, 광고의 기능, 사회계몽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잡지의 커다란 특성은 정기성에 있으며, 그 내용 면에서는 여러가지의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한 권의 잡지 속에서도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으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나 입장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훈, 1989; 이동은, 1989).

잡지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매스미디어로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적인 생리와 함께 대중을 위한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야누스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상업성으로 인하여 상품적 가치에 의하여 정보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질 때 수용자가 필요로하는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계도성보다는 오로지 수용자의 수용욕구에 적응하는 즉 시적 보상에만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이정준, 1884).

여성잡지는 여성층을 겨냥하고 편집하며 여성독자들이 구독하는 잡지라고 할 수 있다.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또한 가사, 육아, 요리, 미용이나 패션정보, 인테리어 등에 관한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는 종합백화점식의 기사나 열 편집을 하고 있다(이현주, 1994).

한국 초기 및 근대 여성잡지의 특성은 교육과 교양을 추구하는 교과서적인 계몽지의 성격과 정치적 독립 및 자유와 남녀평등을 구가하는 혁명적인 사상지의 역할을 겸비한 것이었으며, 여성 잡지의 발간은 그 시대를 특징지우며 여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보편화 시키는데 공헌하였다(이옥진, 1980).

하지만 이런 초창기의 여성잡지의 성격은 산업사회화 되어가고 여성의 교육기능의 확대, 여가시간의 증대, 문명의 이기로 인한 생활개선,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의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여성잡지도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게 되어 과거 근대 여성지의 계몽 위주였음에 비하여 현대 여성지는 평론의 기능, 생활정보의 기능, 오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성잡지의 유형별 기사의 양을 살펴보면 전체기사 중 문화연예기사, 가정기사 다음으로 의료, 건강기사가 1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이현주, 1994).

2. 내용 분석

본 연구는 여성잡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루어졌나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 분석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으로서 조사방법 중에서도 간접방법이며,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과정 속에서 살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내용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기 위한 연구기술을 말한다(채서일, 1994).

내용분석이란 메시지, 즉 전달할 내용의 특징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진의를 추정하는 기법인데(Holsti, 1969(홍종선 외, 1996에 인용)) 이것은 말이나 글로써 표현된 의사소통의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연구기법으로서(Berelson, 1954) 그 기본적 목적은 언어적, 비언어적 문서를 양적 자료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결과를 보통 빈도나 배분율을 포함한 도표로 나타내질 수 있다(홍종선, 1996). 내용분석에 있어서 객관성은 다른 분석자가 같은 내용을 취급할 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명백한 규칙을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계성이란 자료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때 있어서 카테고리를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선택의 기준을 말한다(Holsti, 1969(이지훈, 1993에 인용)).

내용분석의 절차는 어떤 주어진 메시지나 문헌에 나타난 출처, 태도, 주제 등을 알아내는 것으로(차배근, 1994) 처음 미국에서 주로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신문이 취급하는 주제 등의 카테고리를 규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2차대전 전후에 성행하여 Malcolm M. Willey의 연구에서 절정에 달하였고 그의 문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었다(이만갑, 1982).

내용분석은 체계적 분석을 비구어적 행태의 관찰이 아닌 문서에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물론, 활자화된 내용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기사화된 내용의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한다(이홍탁, 1994).

내용분석은 우선 문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상호 배타적이고 망라적인 일련의 카테고리를 구성한 후 연구되는 문서에서 각 카테고리가 관찰되는 빈도를 기록하는 구조화된 문서연구 기법으로 내용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신문, 잡지, 전기, 사설, 연설문, 편지, 공식문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추출되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발달하게 되었다(홍종선, 1996).

내용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는 연구문제를 형성하고,

대상 문헌자료의 모집단을 규정, 문헌자료의 표본을 표출, 분석단위의 규정, 분석내용의 범주(category) 설정, 수량화의 체계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김경동 외, 1994).

연구문제는 내용분석법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제대로 살아있는 문제를 설정하여, 내용분석의 대상인 타이틀(어느 신문, 방송국, 잡지 등)을 선정하고 타이틀내의 어떤 호나 날짜 안에서도 특정한 내용을 선정하게 된다. 내용분석을 위해 우선 내용요소(content element)를 수량화 해야 하는데 이때 내용상의 과제가 되어 있는 면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로서의 어떤 기준 즉, 단위(단어, 명체, 인물, 항목, 지면 및 횟수 등)를 정해야 한다. 내용분석의 범주는 확실하며 연구문제에 딱 들어맞게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문헌에 나타난 주요 범주를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적용하면서 규정되어야 하는데, 크게 '무엇' 즉, 실체와 '어떻게' 즉, 형식과 관련되어 범주시킬 수 있다(김해동, 1994).

내용분석의 문제점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문서를 수집할 수 없어 표본추출을 하여 일부만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 자체에 대한 문제, 조사자의 개별적 판단에 의하여 표본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신뢰도, 선택된 조사도구가 해당 의도한 바를 충족하였는가 하는 타당도의 문제가 있는데 공식적인 타당도 검증의 과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김경동 외, 1994).

본 연구에서는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의 분석에 있어서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을 파악한 수 범주화하고 유사한 속성을 가진 기사들로 분류하여 주가 되는 개념을 대표하는 알맞은 표제를 선택하였으며, 각각의 범주 및 속성에 나타난 건강관련 기사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양적인 비중을 파악하려 하였다. 분석의 객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연구자의 개별적 판단에 의하여 범주화가 이루어지고 검증과정이 뒤따르지 못한 점에 있어 해석자의 주관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3. 선행 연구

이성온(1994)은 주요 일간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의 결과 제공되는 건강관련 정보가 주로 질병의 치료적 측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따라서 건강관리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처리에 중심을 둔 건강관리 제공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최선록(1983)의 ‘최근 3년 동안 중앙 일간지의 보건관계 사설의 내용분석’과 이동연(1971)의 ‘주요 일간신문의 보건관계 사설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두 신문에 실린 보건관계 사설의 내용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내용상의 주제, 논의동기 및 정부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으며 주로 계량적인 표시를 중점으로 하였다.

김실(1994)의 연구에 의하면 한 개인의 건강이나 의학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 등이 매스미디어 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언론은 건강이나 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수용자들에게 알기 쉽고 내용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건강, 의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을 높이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Van Trigt 등(1995)의 ‘가족잡지에 실린 약물에 관한 정보’라는 연구를 통하여 가족잡지에서는 종추신경계 등의 약물과 부인과적인 제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약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이 약물의 이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약물의 부작용같은 약물요법의 다른 측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으며, 의사와 임상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보도하고 있다.

Hotham(1995)의 연구에서는 ‘대중잡지의 임신에 대한 약물과 환경의 영향에 관한 정보 : 비판적 고찰’에서 대중매체와 대중잡지가 건강과 생활패턴에 관한 정보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정보는 불안과 약물, 식이, 생활패턴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변화를 초래하게 됨을 제시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1998년 1월 현재 국내에서 발행중인 약 40여종의 여성잡지중 그 발행률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A, B, C 3가지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36권의 여성잡지에 게재된 기사 중 잡지사측의 분류에 의한 기사들의 소그룹 단위의 명칭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건강, 생활, 육아라는 명칭으로 분류

된 기사그룹에서 건강관련 기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 기사중 주된 목적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하는 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잡지에 게재된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을 서술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계량적으로 조사하는 기법인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여성잡지에 게재된 건강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빈도를 조사하고, 내용을 대상자별, 건강관리별, 주제별 및 정보원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조사하였다.

1) 건강관련 기사의 대상자별 분류

건강관련 기사가 다루는 내용의 대상범위를 여성자신의 건강문제나 아동과 관련된 건강문제, 남편의 건강문제 및 가족전반에 걸친 건강문제를 다룬 내용으로 구분하여 기사내용의 구체적인 분석유목을 ‘여성건강’, ‘자녀건강’, ‘남편건강’, ‘가족건강’, ‘기타’(대상의 범위가 국한되지 않는 각종 건강정보)로 분류하였다.

‘여성건강’에 대한 기사는 출산이나 연령에 따라서 여성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신체적인 문제와 여성 특유의 사회, 심리적인 건강문제 등을 다룬 기사를 선정하였고, ‘자녀건강’에 대한 기사는 아동의 양육 및 성장발달 과정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신체, 심리적 건강문제와 이의 예방,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포함하였다. ‘남편건강’에 대한 건강관련 기사는 주로 대상자들의 배우자인 남성들에게 빈번한 건강문제와 평상시의 건강관리 등에 관련된 내용이며, ‘가족건강’에 대한 기사는 특정 대상층이 아닌 가족전반의 건강관리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그 범위로 하였으며, ‘기타’에는 대상범위의 분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의료제도나 이용 및 건강상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가 해당된다.

기사의 대상범위가 중복적인 경우에는 기사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분류하였고, 분류는 기사의 내용에 의존했으므로 비슷한 제목의 기사라도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였다.

2) 건강에 대한 접근방향별 분류

여성잡지에서 독자인 여성층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련 기사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 일탈시 건강관리’의 두가지 범

주로 구분하였다.

‘건강유지 및 증진’으로 범주화된 기사는 정상 건강 또는 좋은 건강상태에서 최고의 건강상태의 유지를 위한 정보로 즉, 먹고, 자고, 배설하고, 숨쉬고, 일하고, 운동하는 등의 생활하는데 있어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관련된 정보이다.

‘건강 일탈시 건강관리’로 범주화된 기사는 건강상태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불건강 상태로 변화되는 초기에서부터 질병상태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건강상태를 회복하도록 조치하는데 유용한 정보로서 질병에 대한 신체반응 이해와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다룬 기사를 포함한다.

그 외 의료이용과 각종 의학통계자료 등 위에서 제시한 두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사는 부득이하게 분석 대상에 제외하였다.

3) 건강관련 기사의 주제별 분류

해당 건강관련 기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기사에 포함된 내용과 빈도를 살펴보았다.

4) 기사의 정보원별 분류

기사의 정보원은 정부나 보건당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간호관련단체, 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개인, 의, 약학계 연구기관이나 보고서, 기존 출판된 서적이나 강연내용, 해당 기사의 관련단체나 소속인, 일반 개인, 출처불명의 9개항으로 분류하여 기사의 내용에 따라 기사의 정보원 분포상황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3. 연구의 제한점

잡지의 오랜 역사와 그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1년간 3개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기사를 분석하는 것인 전체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잡지의 유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오류를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기사의 출처에 관한 명시가 불분명한 기사로 인해 정보원 분류과정에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잡지별, 월별 건강관련 기사의 분포

조사기간 동안의 해당 여성잡지의 건강관련 기사는 총 317건이었다.

주로 잡지사에서 제공한 기사의 분류상에 있어서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건강, 육아, 생활로 분류된 기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의 분류에 해당된 기사 중에서도 그 내용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 기사는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1>은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를 잡지별, 월별로 비교한 것이다.

세가지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기사는 매월 5건내지 13건이었다.

세가지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 중 고정적인 연재 형식으로 실린 기사는 독자인 여성층의 건강과 관련된 물음에 대하여 의사의 답변을 실은 「우먼크리닉 Say-You」, 「DR. Q에게 물어보세요」와 한의사가 일상생활 중 발생하기 쉬운 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치료와 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 「생활 속의 한방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비슷한 속성의 건강관련 정보를싣고 있었으며, 그 이외 건강관련 기사는 1회성 기사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2. 내용 분석

1) 건강관련 기사 대상자별 분석

기사가 중점으로 다루는 대상을 ‘여성건강’, ‘자녀건강’,

<표 1> 3개 여성잡지에 게재된 월별 건강관련 기사의 수

잡지명	97년 3월호 N(%)	4월호 N(%)	5월호 N(%)	6월호 N(%)	7월호 N(%)	8월호 N(%)	9월호 N(%)	10월호 N(%)	11월호 N(%)	12월호 N(%)	98년 1월호 N(%)	2월호 N(%)	계 N(%)
A	13(4.1)	11(3.4)	13(4.1)	8(2.5)	10(3.2)	6(1.9)	13(4.1)	6(1.9)	9(2.9)	8(2.5)	7(2.2)	7(2.2)	111(35.0)
B	9(2.9)	9(2.9)	7(2.2)	9(2.9)	9(2.9)	9(2.9)	8(2.5)	13(4.1)	6(1.9)	6(1.9)	7(2.2)	5(1.6)	97(30.6)
C	5(1.6)	8(2.5)	10(3.2)	10(3.2)	12(3.8)	8(2.5)	12(3.8)	12(3.8)	10(3.2)	6(1.9)	10(3.2)	6(1.9)	109(34.4)
계	27(8.5)	28(8.8)	30(9.5)	27(8.5)	31(9.8)	23(7.3)	33(10.4)	31(9.8)	25(7.9)	20(6.3)	24(7.6)	18(5.7)	317(100.0)

'남편건강', '가족건강',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해당 내용은 <표 2-1>과 같다.

전체 건강관련 기사의 순위를 보면 113건(35.6%)이 '여성건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기타'가 26.8%, '자녀건강'(17.4%), '가족건강'(15.5%)의 순이었다. '남편건강'은 15건(4.7%)에 불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가족건강'의 영역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잡지별로 볼 때는 A와 B여성잡지가 주로 기혼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C여성잡지는

주로 미혼의 젊은 여성을 그 독자층으로 한결과 C여성 잡지에 실린 기사의 대부분이 자녀,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여성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었다(<표 2-1-1 참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여성건강'에 기사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어트와 관련 기사가 37건(32.7%), 생식기질환을 포함한 여성호발 질환이 25.7%, 건강한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14.2%를 차지하였다(<표 2-1-2 참조>).

<표 2-1> 건강관련 기사의 대상자별 분포

범 주	내 용	기사수(%)
여성건강	여성호발 질환 및 부인과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 안전한 임신, 출산시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 운동 등 각종 요법 여성에게 혼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와 해결책 피부건강(순수한 미용정보는 분석에서 제외시킴)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정보	113(35.6)
자녀건강	이유식, 영양제의 선택과 방법 면역능력 증강을 위한 섭생법 성장발달을 돋는 섭생 및 자녀 양육법 유아의 성장발달 정도의 체크와 장애발견 아동의 혼란 건강장애에 대한 발견, 예방 및 응급처치 및 의학적인 치료법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보 어린이 성교육 아동의 시력관리, 치아관리, 교정 및 체형관리 수험생 건강관리	55(17.4)
남편건강	탈모, 성생활, 돌연사, 통풍	15(4.7)
가족건강	건강검진 질병 및 응급초지를 위한 민간요법 및 자연치료법 일반 의학상식 전염병, 성인질병의 예방 및 무병장수를 위한 생활 운동요법 의학적 시술에 관한 정보 계절성 질환의 예방, 관리법 스트레스 관리법 각종 혼란 질환의 한방치료와 양방치료 건강 자연식품의 활용 가정 환경관리	49(15.5)
기 타	투병모임, 투병기 특정 식품의 효능 의학연구 관련 정보, 각종 화제의 건강요법 건강관련 각종 이론 및 주장에 대한 소개 의료사고, 각종 크리닉 활용에 대한 정보 각종 화제의 건강관련 강좌 기후 건강법 장수비결	85(26.8)
총 계		317(100.0)

〈표 2-1-1〉 잡지별 건강관련 기사의 대상자 분포

	여성건강 기사수(%)	자녀건강 기사수(%)	남편건강 기사수(%)	가족건강 기사수(%)	기타 기사수(%)	계 (%)
A	33(29.7)	30(27.0)	8(7.2)	21(18.9)	19(17.1)	111(100.0)
B	21(21.6)	25(25.8)	6(6.2)	28(28.9)	17(17.5)	97(100.0)
C	59(54.1)	0(0)	1(0.9)	.0(0)	49(50.0)	109(100.0)

〈표 2-1-2〉 ‘여성건강’을 대상으로 한 기사의 내용분포

내 용	기사수 (%)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 운동 등 각종 생활습관	37(32.7)
여성의 호발 질환(빈혈, 저혈압 등) 및 생식기질환의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	29(25.7)
안전한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시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방법	6(5.3)
폐경기증후군, 골다공증, 요실금 등의 중년여성의 건강관리	3(2.7)
여성에게 흔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와 해결책(거식증, 우울증 등)	4(3.5)
피부건강(순수한 미용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함)	6(5.3)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준비	16(14.2)
신체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목욕법	5(4.4)
불임의 예방과 치료	2(1.8)
실내체조 및 운동	5(4.4)
계	113(100.0)

2) 건강에 대한 접근방향별 분석

수집된 건강관련 기사를 건강관리의 방향에 따라서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일탈시 건강관리’의 2부분으로 범주화 하였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66편의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전체 기사의 내용 중 순수하게 ‘건강유지 및 증진’의 접근방향을 보인 내용으로 분류된 기사는 120건(47.8%

%), ‘건강일탈시 건강관리’는 26건(10.4%)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105건(41.8%)은 ‘건강유지 및 증진’과 ‘건강일탈시 건강관리’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는 따로 분류하였다(표 2-2). 이외 분석에서 제외시킨 66편의 기사에는 각종 의료이용 행태, 통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 2-2〉 건강에 대한 접근 방향별 분석

범 주	내 용	기사수 (%)
건강유지 및 증진	여성 자신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식이, 운동 및 목욕법 생활습관과 정신, 심리적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120(47.8)
건강일탈시 건강관리	질병의 유발원인, 발생기전, 질환의 초기증상과 조기 발견, 임상에서 시행되는 전단법과 각종 양, 한방 치료, 시술 방법에 대한 내용과 질병 시 자가관리법에 대한 정보	26(10.4)
건강유지 및 증진과 건강일탈시 건강관리	위의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포함한 기사	105(41.8)
계		251(100.0)

3) 건강관련 기사의 주제별 분석

건강관련 기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주제별로 파악해보고 해당 기사의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

보았다. 한 기사의 내용에 2가지 이상의 주제가 다루어진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을 분류의 기준으로 하였다.

가장 빈번히 다루어진 주제는 41건(12.9%)을 차지한 각종 성인질환의 발생, 예방, 치료에 대한 기사였으며 그 중에서도 천식과 비염 등의 알러지성 질환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은 다이어트 방법을 내용으로 한 기사가 전체의 37건(11.7%)을 차지하였고

학술정보(11.3%), 여성질환(10.4%), 식품효능(6.0%), 아동성장발달과 육아법(5.7%), 각종 건강 치료요법(5.7%) 성생활(5.4%) 및 운동(4.7%) 등의 순이었다(표 2-3).

그 외 기타로 분류된 36건(11.3%)의 기사에는 학계 보고서나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표 2-3〉 건강관련 기사의 주제별 분포

주 제	내 용	기사수(%)
아동 성장발달과 육아법	아동성장발달 체크법, 영양제, 이유식의 선택과 방법 어린이 예방접종, 젖니관리법 면역증강 육아법 등 각종 육아법소개(자연식육아법...) 방학중 아동신체검진	18(5.7)
성 교 육	성교육 지도요령과 대처법	2(0.6)
아동질환	치아, 시력이상 발견 아동질병의 예방과 사고시 응급대처 감기 등 혼한 질환의 건강관리법	5(1.6)
중·고생 건강	자세로 인해 유발되는 척추측만증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수험생 건강관리	4(1.3)
임신, 출산	임신증의 신체관리, 출산관련 정보 제왕절개분만과 관리	6(1.9)
다이어트	식이, 운동, 생활습관을 통한 체중 감량법 성공적인 체중감량 수기 임신증 다이어트, 산후 다이어트 각종 다이어트 방법(생식다이어트, 물 다이어트 등) 비만관리 기관 소개	37(11.7)
불 임	불임의 원인과 관리	2(0.6)
여성질환	여성질환(유방암, 난소암 등)의 조기발견과 치료 각종 여성호발 질환 상당(저혈압, 빈혈, 낸증, 변비, 거식증 등)	33(10.4)
중년여성 건강	갱년기 건강관리, 골다공증, 요실금 예방과 치료	3(0.9)
수명과 장수	식사, 운동, 생활습관을 통한 장수 비결	8(2.5)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화병, 우울병 관리	8(2.5)
운 동	운동의 효과와 방법	15(4.7)
목 육 법	건강한 피부와 신체기능을 도와주는 목육법	6(1.9)
질 환	통풍, 조루증, 이명,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치질, 축농증, 균시와 난시, 만성피로, 두통의 예방과 치료 각종 치료적인 시술법(성형수술, 라식수술 등)	41(12.9)
계절 건강	계절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관리 봄, 여름철, 겨울철 호발 질환(감기, 눈병, 치병, 피부질환...)의 예방 관리 및 안전대책	10(3.2)
건강검진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항목, 유의사항	3(0.9)

〈표 2-3〉 계속

주 제	내 용	기사수(%)
성 생 활	연령 및 남녀에 따른 건강한 성생활 방법 성생활 관련 통계보고	17(5.4)
약물치료	항암치료제 약물 개발	4(1.3)
민간요법	각종 증상과 질환에 사용되는 민간요법	5(1.6)
자연치료법	각종 질환의 섭생통한 자연치료법 자연치료를 통한 투병기	8(2.5)
각종 건강치료요법	웃음치료, 두뇌건강법, 항문건강법, 실천조건뇌법, 최면치료 신바람건강법, 돌멩이요법, 뒤집기건강법, 음악요법, 발반사요법 등	18(5.7)
식품효능	홍삼의 효능, 민간약술, 차나 와인의 효과, 정력식품 등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식품	19(6.0)
氣건강법	인체음양의 원리, 기공술	4(1.3)
환경 관리	오존, 프레온 가스 등의 유해성과 평소 환경관리법	3(0.9)
의료사고	의료사고 유형과 대처방법	2(0.6)
기 타	암관련 학제보고서, 흡연과 성인병예방 심포지엄 자료 등 각종 의료이용 통계, 인터넷 의료이용 정보 등	36(11.3)
총 계		317(100.0)

4) 기사의 정보원

다음의 9개 항목에 의하여 기사의 정보원을 분석해보

았다. 한 기사에서 정보의 출처가 2곳 이상인 경우 중복 포함시켰다.

〈표 2-4〉 건강관련 기사의 정보원 분석

정보원*	해당 기사수(%)	비 고
보건당국이나 정부	3(0.7)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15(49.0.)	
간호 및 간호관련 단체	1(0.2)	대한간호협회
스포츠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20(4.6)	
의, 약학계 연구기관의 학술논문이나 보고서	21(4.8)	
기존 출판된 서적이나 강연내용	39(8.9)	
해당기사 관련단체나 소속인	49(11.2)	교사, 아동센터, 음악치료사 물리요법 연구가 수지침 학회 비만관리실 가족치료 연구소 식품공학 교수나 연구소 식품개발 연구소 분유, 이유식 제조업체 철학자, 역술인, 기업인... 투병기나 각종 사례
일반개인	54(12.3)	
잡지사의 기자, 리포터, 자유기고가 및 출처불명	37(8.4)	
총 계	439(100)	

* 정보원 : 1개 이상임

215건(49.0%)의 기사가 해당분야의 의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기사전체가 의사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인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의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사를 담당한 기자, 리포터 혹은 자유기고가에 의해서 재정리 되거나 조언의 형식으로 부분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의사가 직접 기사의 내용을 쓴 경우는 전체기사 중 9건(2.8%)에 불과하였다.

그 외에도 일반 개인의 투병기나 각종 사례가 12.3%, 해당 기사 관련단체나 소속인(가족치료연구소, 교사, 물리치료사 등) 11.2%, 기존 출판된 서적이나 강연 내용이 8.9% 등이 기사의 정보원이 되었다. 간호사나 간호관련 단체로가 정보원이 된 경우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공된 '스킨쉽 육아법'에 관한 기사 1편으로 전체의 0.2%에 해당되었다<표 2-4>.

V. 논 의

본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성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련 정보를 살펴보기 위하여 1년간 3개 월간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을 대상자별, 건강관리별, 주제별 및 정보원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조사하였다.

건강관련 기사의 대상자별 구분은 '여성건강'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가 113건(35.6%)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녀건강'(17.4%), '가족건강'(15.5%) 등으로 여성자신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자녀나 남편, 가족 및 기타로 분류된 전문적인 의학적 정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여 독자층인 여성의 가정내의 건강을 유지하고 문제해결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결정에 있어 여성의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건강에 대한 접근방향에 의해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일탈시의 건강관리'로 분류하였는데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66건을 뺀 251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120건(47.8%)이 현재의 건강상태에서 최상의 건강상태 유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정보였으며, 26건(10.4%)이 질병의 발생 및 치료적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포함한 기사가 105건(41.8%)을 차지함으로서 단순히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측면의

관리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병예방 및 최상의 건강상태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관련 기사의 주제별 분류시 가장 빈번히 다루어진 부분은 41건(13.0%)인 질환의 발생, 예방, 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천식과 비염 등의 알러지성 질환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 다이어트 관련 기사가 전체의 37건(11.7%), 학술정보(11.3%), 여성질환(10.4%) 등의 순이었다.

기사의 분석은 각 주제별 내용과 빈도 파악에 그치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공된 건강관련 기사중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특정부분의 건강 유지의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정보만을싣고 있는 경우 건강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해가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화제의 건강치료법(5.7%), 개인의 투병기나 사례가 건강정보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지 않은 독자층에게 있어 Hotham(199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그릇된 정보는 불안 그리고 약물, 식이, 생활패턴 등에 있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잡지가 상품적 가치에 의하여 정보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질 때 오로지 수용자의 수용 용구에 적응한다는 (이정춘, 1984) 지적처럼, 독자의 요구와 사회, 문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특정정보를 부각시키거나 오보될 가능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37건(11.7%)에 해당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기사는 그것이 비록 독자의 요구라 할지라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건강정보로서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여성의 신체상에 대한 그릇된 신념과 여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성생활 관련 기사도 건강한 성생활을 심리, 육체적 준비를 위한 정보와 흥미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사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취사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잡지의 광고영역에 해당되어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서는 제외시켰으나 미용 자체를 그 목적으로 한 지방흡입술, 종아리근육퇴축술, 안면윤곽성형, 유방성형

등 각종 성형시술에 대한 광고가 ‘의학특강’, ‘건강정보’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를 접하는 독자층이 그대로 건강정보의 일면으로 수용할 경우 여성건강에 대한 그릇된 신념과 정보를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9개로 구분된 건강기사의 정보원 중 해당분야 의사가 정보원이 된 경우가 49.0%였으며 개인으로부터 제공된 투병기나 각종 사례 12.3%, 해당기사의 관련단체나 인물 11.2%, 기존 출판된 서적이나 강연 내용 8.9%의 순이었다. 간호 및 간호관련 단체가 정보원이 된 경우는 전체의 0.2%에 불과해 아직도 간호사가 건강정보 제공에 있어 비중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성은(1994)이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건강한 생활양식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관리 정보원 중 하나인 여성잡지의 건강관련 기사에 대한 지속 모니터와 보완이 필요하며, 여성의 건강관리에 있어 간호사가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의 건강관련 정보 중 여성잡지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여성에게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경향을 파악하여 여성에게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건강정보 제공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발행률 상위를 차지하는 3개 여성잡지를 선정해 1997년 3월호부터 1998년 2월호의 건강, 생활, 육아면을 중심으로 해서 실린 건강관련 기사 317개이다. 자료분석은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를 이용하였으며 건강관련 기사의 내용을 대상자별, 건강관리별, 주제별 및 정보원별로 빈도수와 배분율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건강관련 기사를 건강의 대상자별로 ‘여성건강’, ‘자녀건강’, ‘남편건강’, ‘가족건강’,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사가 113건 (35.6%), ‘자녀건강’ 17.4%, ‘가족건강’ 15.5%, ‘남편건강’ 4.7%, ‘기타’ 대상범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26.8%를 차지하였다.
2. 건강에 대한 접근방향별 구분시 ‘건강유지 및 증진’

이 120건(47.8%), ‘건강일탈시 건강관리’가 26건 (10.3%)이며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 일탈시의 건강관리’ 두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포함한 기사가 105 건(41.8%)이었다.

3. 건강관련 기사의 주제별 분류시 각종 질환의 발생, 예방, 치료에 대한 부분이 41건(12.9%)이었으며, 다이어트 관련 기사가 37건(11.7%), 학습정보(11.3%), 여성질환(10.4%), 식품효능(6.0%), 아동성장 발달과 육아법(5.7%), 각종 건강치료 요법(5.7%) 성생활(5.4%), 및 운동(4.7%) 등의 순이었다.
- 4) 9개로 구분된 건강관련 기사 정보원에서는 해당분야의 의사로부터 정보제공이 215건(49.0%) 일반 개인의 투병기나 각종 사례가 12.3%, 해당 기사의 관련단체나 소속인(가족치료 연구소, 교사, 물리치료사 등) 11.2%, 기존 출판된 서적이나 강연 내용 8.9% 등의 순이었다. 간호사나 간호관련 단체가 정보원이 된 경우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정보를 제공한 ‘스킨쉽 육아법’에 대한 기사 한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잡지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련 기사는 여성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포함하여 질병발견과 치료는 물론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폭넓고도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만큼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와 접근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건강한 생활양식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관리 정보원으로서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의 유지, 증진의 측면에 있어 간호사가 정보제공과 교육의 실직적인 분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건강관리의 유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의 하나인 여성잡지를 통하여 올바른 건강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유용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일부 여성잡지에서 다루어진 건강관련 기사만을 논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잡지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건강관련 기사 외에도 건강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과 관련된 광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잡지에 실린 건강관련 기사의 양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건강관련 기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3. 여성잡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정도,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대상 여성들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간호사에 의한 건강관련 정보제공이 일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건강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가족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동, 이온죽 (1994). 사회조사 연구방법론 : 사회연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박영사.
- 김 실 (1994). 한국신문의 보건에 대한 보도성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동 (1994). 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안동주 (1993). 국내 주요일간지 환경기사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은 (1989). 유아잡지 사회기사의 분석연구 : 1986-1989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만갑 (1982).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한국학습교재사.
- 이성은 (1994).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진 (1980). 여성잡지를 통해본 여성신장 : 1906년부터 1929년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춘(1884).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서울: 범우사.
- 이지훈 (1993). 사회과학의 메타분석 방법론. 충북대학교 출판부.
- 이현주 (1994). 한국 여성잡지의 '적응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탁 (1994). 사회조사방법론 : 사회조사와 자료분석 기법, 서울: 차산출판사.
- 차배근 (1994).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세영사.
- 채서일 (1994).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최선록 (1983). 최근 3년 동안의 보건관계 사설의 내용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사회과학학연구협력회 (1983). 사회과학방법론, 서울: 박영사.
- 홍종선, 박옥희, 최창현 (1996). 조사방법과 통계자료분석.

석, 서울: 박영사.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Guillen, E. O., & Barr, S. I. (1994). Nutrition, dieting, and fitness messages in a magazine for adolescent woma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5(6), 464-72.

Hotham, N. J. (1995). Information on drug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in pregnancy in popular magazines. Medicine Journal of Australia, 17:162(8), 417-20.

Van Trigt A. M., de Jong-van den Berg L. T., Pasman M., Haaijer-Ruskamp F. M., Willems J., & Tromp T. F. (1995). Information about drugs in family magazines. Pharm World Science, Mar., 24:17y(2), 48-53.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Contents Related to Health in the Three Major Monthly Women's Magazine.

(March, 1997-February, 1998)

*Yoo, Eun Kwang** · *Lee, Seong Eun***

*Kim, Myou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tents related to health in the three major monthly women's magazine that was printed from March, 1997 to February, 1998. The unit of analysis was the section of health, living life, and rearing child. The total number of related story of health was 317. The analysis was done according to the target, health management, topics and the informer by using frequency and number.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contents were categorized by target people.

*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 Fulltime Lecturer, Dept. of Nursing, Kyungbuk College

*** Fulltime Lecturer, Dep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The number of items for women was 113(35.6%), child(17.4%), family(15.5%), husband(4.7%) and others(26.8%). Others were the contents that are impossible to classify.

2. The number of items of contents by health management was the related to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120(47.8%), health care when they were deviated from health 26(10.3%), and those of both attributes 105(41.8%).
3. The number of items of contents by topics was the related to the occurrenc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arious kinds of disease 41(12.9%), diet 37(11.7%), academic information 11.3%, women's disease 10.4%, the effect of foods 6.0%, child's growth & development and child care 5.7%, various kinds of therapy for health care 5.7%, sexual life 5.4% and exercise 4.7%.
4. The number of items of contents by informer was medical doctor 215(49%), lay person's case report or report of a struggle against a disease 12.3%, relevant organization of a related story(eg. family therapy research institute, physical therapist's or teacher's) 11.2%, and the contents of existing books or lecture 8.9%. Among those contents, only the one case from nurse or Korean

nurses association as informer was founded, which is related to "skinship child care."

In conclusion, this finding showed that women's magazine took a role as a important resource providing informations of health to women. It provides a challenge to the health professionals to have concerns on women's needs, and the content, source, and accuracy of the health related information and take part in the process producing information through such as screening and examining so as to give accurate information to women. Then women's magazine can take a role as a major resource for maintaining and promoting women's health. Finally, nurses's, who are professional health care providers, important and active role as informers toward the lay persons, especially for the women who are non-professional care givers at the family unit should be stressed. More active and continual monito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related health in the mass media including magazine and Internet network in detail, and participating in establishing the system of adequate and precise information for women and lay persons from the nursing profession are required absolutely.